



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세 가속화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2년 2월 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속화되며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2012년 2월 말 예금취급기관¹⁾ 가계대출 잔액은 640조 2,889억 원으로 전월대비 1조 162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사철 수요 등으로 인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.
 -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9조 4,270억 원으로 전월대비 8,408억 원 증가한데 반해 기타대출²⁾ 잔액은 248조 1,435억 원으로 2,169억 원 증가하였음.
-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이 각각 전월대비 4,630억 원(0.1%), 5,497억 원(0.3%) 증가하였음.
 -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³⁾ 453조 5,449억 원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5조 9,413억 원으로 전월 대비 6,556억 원 증가하였고, 기타대출 잔액은 144조 9,515원으로 1,483억 원 감소하였음.
 -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 186조 7,441억 원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3조 4,857억 원으로 1,852억 원 증가하였고, 기타대출 잔액은 103조 1,920억 원으로 3,652억 원 증가하였음.

■ 주택시장 침체 지속으로 은행 가계대출 잔액⁴⁾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.

- 잠정 집계된 2012년 3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에 비해 4,000억 원 감소하였음.
-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1조 1,000억 원 증가하여 2011년 3월 증가폭 2조 1,000억 원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었기 때문임.
- 기타대출 잔액은 2월 말에 비해 1조 5,000억 원 감소하였음.
 - 이는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및 일부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자금 환불 등 일시적인 원인 때문임.

(한국은행 보도자료 외)

1)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(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상호금융, 신탁 및 우체국예금 계정)임.

2) 마이너스통장 대출, 예적금담보대출 등 주택대출이외의 가계대출임.

3) 신탁 제외임.

4) 신탁 포함.